

# OPEC의 原油價인하와 전망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

지난 10년간 油價인상을 주도해온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지난 1월 30일 史上 두 번째로 油價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83년초 기준원유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가격을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5 달러 인하했던 OPEC는 이번에 다시 1 달러 낮춘 28달러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OPEC 총회의 주요합의내용을 보면, ① 유종간 가격차를 종전의 배럴당 4 달러에서 2.4달러로 축소하고, ② 지금까지 아라비안 라이트를 기준으로 했던 기준원유가격제도를 철폐하고, 그 가격을 배럴당 29달러에서 28달러로 인하하며, ③ 배럴당 26.5달러인 아라비안헤비(重質油)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④ 나이지리아産 보니라이트(輕質油) 가격을 배럴당 28달러에서 28.65달러로 0.65달러 인상하는 것 등이다.

이같은 유가의 인하와 유종간 가격조정은 공급과잉하의 석유시장동향에서 볼 때, 벌써부터 예상되어온 조치이지만, 회원국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한 OPEC의 가격통제기능의 약화와 非OPEC 산유국의 공급능력증대 및 소비국의 산업구조변화와 소비절약에 따른 수요감소는 유가의 추가적 인하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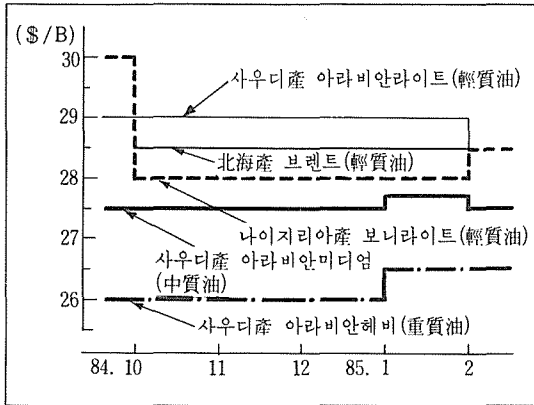
그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는 석유시장 환경을 살펴볼 때, 이번의 OPEC결정도 油價의 하락 경향을 능동적으로 막아보려는 OPEC의 自救的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OPEC의 유가인하 및 유종간 가격차 조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남으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油價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OPEC의 결정 역시 앞으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非OPEC 산유국에 의한 증산이 制動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OPEC 회원국들이 회원국의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감시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도 그것이 OPEC 각국의 증산과 덤핑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OPEC의 유종간 가격차에서 나타난 변화는 그동안 OPEC의 「아킬레스健」으로서 괄시를 받아오던 重質油가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년동안 重質油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으

油種別價格 조정내용



주요 原油價格 조정내용

(單位: \$/B)

國名	原油名	新價格	從前價格	變動幅	適用日
사우디아라비아	Arab. Light	28.00	29.00	-1.00	85.2.1
	Arab. Medium	27.40	27.65	-0.25	"
	Arab. Heavy Berri	26.50	26.50	0	"
U A E	Murban	28.15	29.31	-1.16	"
	Zakum	28.10	29.21	-1.11	"
	Umm Shaif	28.05	29.11	-1.05	"
쿠웨이트	Kuwait	27.30	27.55	-0.25	"
인도네시아	Minas	28.53	29.53	-1.00	"
이란	Iran. Light	28.05	29.11	-1.06	"
	Iran. Heavy	27.30	27.50	-0.20	"
나이지리아	Bonny Light	28.65	28.00	+0.65	"

나, 輕質油가격은 OPEC 공시가격 이하로 하락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重質油는 여전히 공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輕質油는 공급과잉현상을 빚어 석유시장의 二重構造를 나타내 왔다. 현재 重質油는 대부분 非OPEC 산유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重質油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OPEC의 석유시장점유율이 감소한다는 의미가 된다.

최근 국제석유시장에서 重質油의 수요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3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重質油매장량이 輕質油매장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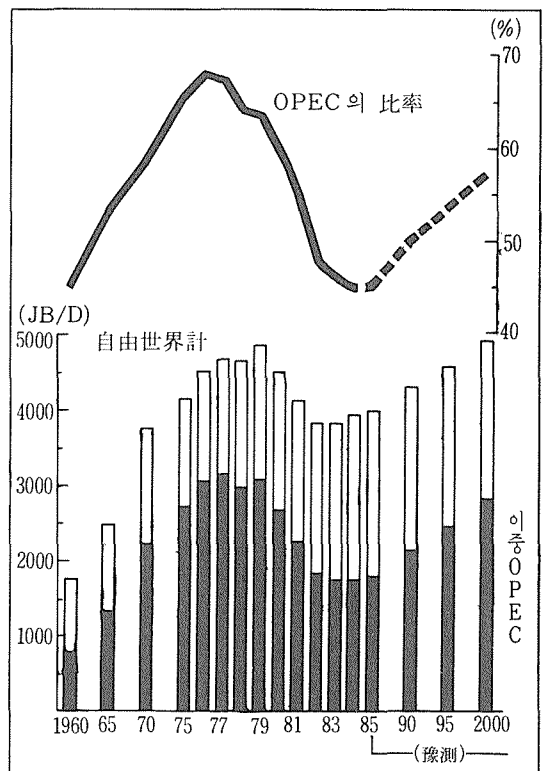
라스카에서 南美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重質油는 中東을 비롯한 여타지역에서의 重質油매장량보다 많다. 유럽제국에도 상당량의 重質油가 매장되어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상태이다.

둘째는 생산비용이다. 重質油는 일반적으로 지표면에 가깝게 매장되어 있어 발견과 생산이 용이하며, 생산비용도 배럴당 5~1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셋째는 과거 수년간 선진공업국들의 정유회사들이 重質油분해시설을 완비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重質油의 공급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重質油생산비용이 輕質油생산비용보다 배럴당 3~10달러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각국의 정유회사들은 重質油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정유회사들의 중질유 분해시설을 증대시켜온 속도가 重質油생산 증가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重質油공급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또

OPEC의 地位변화 추이



## 제73차 OPEC총회공동성명 (全文)

제73차 OPEC임시총회가 1985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총회는 인도네시아 광물 에너지 장관이며 동국 대표단 단장인 Subroto 각하를 의장으로 교체의장에는 알제리의 에너지 석유산업장관이며 동국 대표단 단장인 나비 각하를 각각 만장일치로 재선출 하였다.

총회는 읍저버로 참가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멕시코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이들 국가들은 이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제석유시장과 가격구조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OPEC과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총회는 Otaiba UAE 석유광물자원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시장감

시위원회의 지난 총회 이후 시장상황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였다.

총회는 Yamani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광물자원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유종간 가격차 조정위원회의 보고를 토의하였다.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UAE, 베네수엘라는 Gulf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질원유(Arabian Heavy)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경질원유의 최대 가격차가 US 2.40/bbl로 조정될 것과 이에 따라 각국 생산원유가격은 첨부된 가격표를 기준으로 각각 재설정, 이를 85. 2. 1 부로 실시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알제리, 이란, 리비아는 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

며, 가봉은 기권하였다.

총회는 계속해 야마니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실무 위원회의 보고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승인하였다.

총회는 스위스 정부와 제네바시가 보여준 친절과 회의진행을 위한 훌륭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 가 격 표

Arab Heavy	\$ 26.50/bbl
Arab Medium	\$ 27.40/bbl
Arab Light	\$ 28.00/bbl
Murban	\$ 28.15/bbl
Minas	\$ 28.53/bbl
Bonny Light	\$ 28.65/bbl

重質油가 미래의 석유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美国, 캐나다등 선진공업국들이 예전과는 달리 重質油분해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있어 당분간 重質油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아라비안라이트의 기준유가제의 철폐와 관련하여 볼 때 앞으로 실질적인 기준유종은 사우디產 아라비안·헤비(重質油)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우리의 최대관심은 導入원유가의 인하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있다.

동자부는 이번 OPEC의 油價조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유종별 가격을 조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복합단가는 배럴당 0.48달러가 빠져 국내유가를 1.5% 내릴 수 있고, 원유도입비용도 연간 1억 8백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유가에 반영된 換率이 83년 12월 1일 7백97원90전에서 85년 1월 1일 현재 8백29

원 50전으로 올라 국내 原油代는 이미 3.7%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유류시장 구조가 마진이 높은 휘발유등 경질유판매비중이 높아지는데 힘입어 정유사의 수익증대가 1% 가량 늘고 있어 이를 인상요인에서 차감하면 전체적으로 국내 油價에는 1.2%의 인상요인이 계속 남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 영향 이외에 이번 OPEC의 가격조정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반구지역에 미칠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OPEC가 공동성명에서 6개의 주요유종의 새 가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新가격을 명시한 OPEC회원국은 사우디 아라비아 3油種,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각 1油種이다.

OPEC회원국중에서 가장 재정난이 심해 지금까지 앞장서서 가격인하를 주도해온 나이지리아가 이번에 배럴당 0.65달러 인상, 이를 공동성명에 명

시한 것은 北海 브렌트원유와 동일한 공식판매가격(배럴당 28.65달러)을 설정함으로써 北海원유의 가격인하구실을 주지 않으려는 非OPEC 대책상의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머지 3개국의 5개 유종은 그 주요시장이 韓國을 포함한 극동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동반구시장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는 OPEC회원국이 총회의 이름으로 결정된 공식판매가격을 사수할 결의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OPEC는 韓國, 日本, 台灣, 필리핀, 싱가포르, 泰國, 濠洲, 印度 등 동반구(태평양·인도양)시장에서의 카르텔가격 실현을 목표로 특정시장에 대한 카르텔로 변질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반구시장에서 위의 8개국의 원유수입에서 차지하는 OPEC의 비중은 80% 수준으로 매우 높다.

반면에 유럽이나 美國에서는 自國產원유 및 非OPEC원유의 공급증대와 스파트거래의 증대로 OPEC의 카르텔가격이 적용되지 않고, 자유경쟁시장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석유시장의 分化와 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장분화과정에서 원유도입가격수준의 지역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極東에서는 유럽이나 美國과 보다

배럴당 2~3달러 정도 높게 설정되고 있으며, 현물시장기능이 발달되고 자유경쟁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석유가격인하가 빠르다고 한다.

석유의 공급과잉, 다른 상품·서비스에 대한 상대가격의 불리가 조정되기까지 적어도 80년대중에는 석유가격의 下向수정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달러화 베이스에 의한 석유가격의 인하과정에서 그 지역격차는 더욱 확대될지도 모른다.

OPEC는 이번 총회를 통해 유종간 가격차를 해소하고 油價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카르텔의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이번의 油價인하폭이 소폭이기 때문에 현재의 석유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를 크게 자극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비수기인 봄철에 접어들면, 또 한차례 하락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인하조치에 반대했던 이란, 알제리 등 강경산유국들의 향후 산유량 및 가격체제가 OPEC의 결속은 물론 油價체제 유지에 저해요소로 남아 있고, 英國, 노르웨이 등 北海산유국들이 OPEC조치에 대응하는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당분간 油價의 약세 내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原油價格動向 □

### 세계原油價 회복기미

英國產 29弗 아랍輕質油 27.5弗로 올라

지난달 30일 石油輸出國機構(OPEC)가 원유公示價를 배럴당 평균 1달러씩 인하조치한 이후 世界油價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수브로토 인도네시아石油相이 지난 2월 12일 말했다.

그는 英國의 북해產 원유의 現物價가 현재 29.10달러로 公示價인 28.65달러를 넘어섰으며 아랍輕質油도 公示價인 27.60달러線에 접근한 배럴당 27.50달러 수준이라고 말하고 다만 重質油價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브로토 석유상은 이같은 油價회복세는 지난달 30일 OPEC가 취한 유가인하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OPEC회원국들에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인도네시아의 기준油種인 미나스油를 제외한 다른유종에 대한 수입국들의 油價인하 요구는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30일 輕質油인 미나스油價를 배럴당 29.53달러에서 28.53달러로 인하했었다.